

# 해외의약뉴스

## C형 간염과 연관된 두경부암

### 개요

C형 간염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형 간염이 일부 두경부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사실이 두경부암 치료와 C형 간염 검진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C형 간염은 암환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 형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키워드

C형 간염, 두경부암, 감염

C형 간염은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간 감염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350만 명 이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혈액 매개 감염(bloodborne infection)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토레스박사는 “우리는 C형 간염이 치료 가능한 감염질환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항바이러스제(antiviral drugs)로 C형 간염환자의 90% 이상 치유하고 검진과 치료로 질병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C형 간염이 간암,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s lymphoma)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한다.

토레스 연구진은 의료센터를 찾은 3만 4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형 간염환자에게서 입과 목에 암 발생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C형 간염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후두암(larynx cancer) 발생위험은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C형 간염을 가진 두경부암 환자들은 다른 암과 연관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립암연구소저널(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게재된 이번 연구결과는 두경부암 치료와 C형 간염 검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토레스박사는 “C형 간염은 암환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형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사들은 C형 간염이 간 이외에도 신체 전반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원문정보 ■

[https://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58294.html](https://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58294.html)